

2001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

김 주 현

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장

I. 머리말

21세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역동적인 한해가 될 것이다. 국경이 무너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많은 국가들이 위기탈출을 위하여 구조조정, 지식기반사회의 구축 및 정보화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.

우리의 경우도 최근 경제전반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경제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나 기업,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.

금년 한해 지방세정을 둘러싼 여건도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인한 담세력 약화 등 지방세수 측면에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발전에 따른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한 과세의 투명성·합리성 및 다양한 납세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.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 및 상거래의 보편화 현상으로 이를 활용한 전자세정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요